

5번이후 치아가 빠진경우의 부분무치악환자의
임프란트수복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경북대학교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부교수 조성알

문 : 5번이후 치아가 빠진경우의 부분무치악환자의 임프란트수복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 : 가장문제가 되는것은 상악과 하악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악 5번이후의 후방치아가 상실된 경우, Tripodism을 위하여 3개의 임프란트를 심게되는데 최후방에 심는 임프란트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임프란트식립시와 보철시 두과정 공히 상하악간의 공간확보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경우 임프란트식립이전에 진단모형을 교합기에 mounting하여 보아 최후방 임프란트가 식립될 부위의 상악대합치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4번 이후의 치은조직으로부터 대합치와의 거리가 6미리가 안되는 경우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보아야 하며 만일 6미리 미만의 공간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 정상교합면에서 보다 치아가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골드시린더(보철물과 용융 연결되는 금속구조물)가 없는 보철물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할수 없는 것인지를 임프란트식립전에 교합기에 mounting된 진단모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첫째, 가급적 그 부위를 피하여 차라리 더욱 후방으로 임프란트를 심거나(대합치가 8번이라면, 8번의 발치를 고려)

둘째, 대합치를 endodontic treatment후, 교합평면을 맞춥니다, 가끔 골드시린더를 쓰지아니하여 abutment screw만으로 연결되는 보철물을 설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는 gold-screw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합력의 집중을 최후방임프란트 fixture에 가할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에 의하여 이 상황을(대개는 첫번째 방법에 의하여) 임프란트시술전에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대개의 경우는 어려움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